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519-14

KOICA

제43호 | 2018. 10월

개발과 이슈

중국 일대일로와 일본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KOICA의 함의

- I. 개발협력과 파트너십
- II.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 III. 일본의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 IV.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및 KOICA 함의

5P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있는 SDGs에서 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양한 협업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요인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개발협력은 새로운 협력 관계 및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아세안 및 인도 지역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관계 강화 및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기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협력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주변국에 대규모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들로 구성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원조체제를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개발협력의 경우, OECD DAC 초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및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과는 MPAC2025 등의 전략에 연계하여 협력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도와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협력 사업 외에도 미국 등과의 해당 지역의 경제·안보적 특성을 반영한 단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으며,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3P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외교·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한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에 구체적 전략 수립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 이행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ODA 연구·정보센터 윤유리

I. 개발협력과 파트너십

국제사회 속에서 개발협력은 그 단어가 이미 내포하고 있듯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일방적 지원은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추세를 살펴보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5P(People, Prosperity, Peace, Planet, Partnership)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개발협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국가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함께 상생하는 개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개발협력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단순 원조·지원을 뜻하지 않으며, 정치·외교적인 요인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발협력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존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협력국으로서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개발협력의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보다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재원으로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원 및 접근 방식을 확대하는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역시 20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개발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역시 이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아세안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3P(Partnership for 3P—peace, prosperity, people)를 강조하며 타 국가의 협력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 경제·외교·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점임에 틀림없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과 일본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각자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개발협력에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들어 주변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접근 전략과 규모는 다르지만,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중점 전략과 관련 개발협력 현황을 비

교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해외원조국 중 하나로, 중국의 개발협력 혹은 대외원조(Foreign Aid¹⁾)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협력 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대내적으로는 발전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인 셈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혹은 대외원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들로 구성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시기별로 그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나, 90년대 중반 이후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가 급감하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 시장 확보가 강력한 목적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중국 수출입은행 설립으로 무역과 투자를 결합한 경제협력 방식의 대외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²⁾. 고속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현재, 주변국과의 평화적인 발전을 표방하며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

1)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는 신대외전략으로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 육상·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통합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색하고자 함이다. 과거 실크로드의 부활, 뉴실크로드라고도 불리우는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되었으며, 중·동구,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인프라 연결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일대일로 세부 전략³⁾이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

1) OECD DAC의 정의보다 훨씬 광범위함에 따라 ODA 대신 대외원조라는 용어를 사용. ODA보다는 OOF에 근접한 형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2) 권율·박수경 (2010)

3)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계획(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 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행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개방형 전략인 만큼 지난 5년 간 주변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왔으며, 무엇보다도 대외직접투자 증가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26개 국가 및 지역 인구 44억 명(전 세계 총인구의 63%)의 21조 달러 규모(세계 경제의 29%)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을 예상하고 있다⁴⁾.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자 전략인 만큼 아시아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국가 간 외교관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일대일로의 육·해상 주요 노선도



출처: The Economist

4) 中国日报网, 中国‘一带一路’构想将重塑全球经济格局, 2014. 8. 19

[표 1] 지역별 일대일로 연선국가

지 역	국 가
중앙아시아(5)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시아(1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동북아시아(2)	몽골, 러시아
독립국가연합(6)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남아시아(8)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몰디브, 부탄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16)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란,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예멘, 시리아, 팔레스타인
중동 및 유럽(16)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출처: 권율·박수경, 2010

2)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 보다는 유상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록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역으로 추적하여 각각 2010년부터 2012년간 약 138억 달러⁵⁾,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0개국 4,304개 프로젝트에 약 3,500억 달러 (ODA 및 OOF 총액)⁶⁾, 2000년부터 2011년까지 對아프리카 약 150억 달러⁷⁾, 2006년부터 2016년까지 對태평양도서국 약 18억 달러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Dreher et al.(2017)에서 언급한 약 3,500억 달러는 같은 기간 미국의 약 3,900억 달러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 금액으로, 중국 대외원조의 엄청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Zhang and Smith(2017)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수원국은 아프리카가 51.8%, 아시아가 30.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 국별 대외원조 규모는 363억 달러로 러시아가 가장 많이 차

5) Zhang and Smith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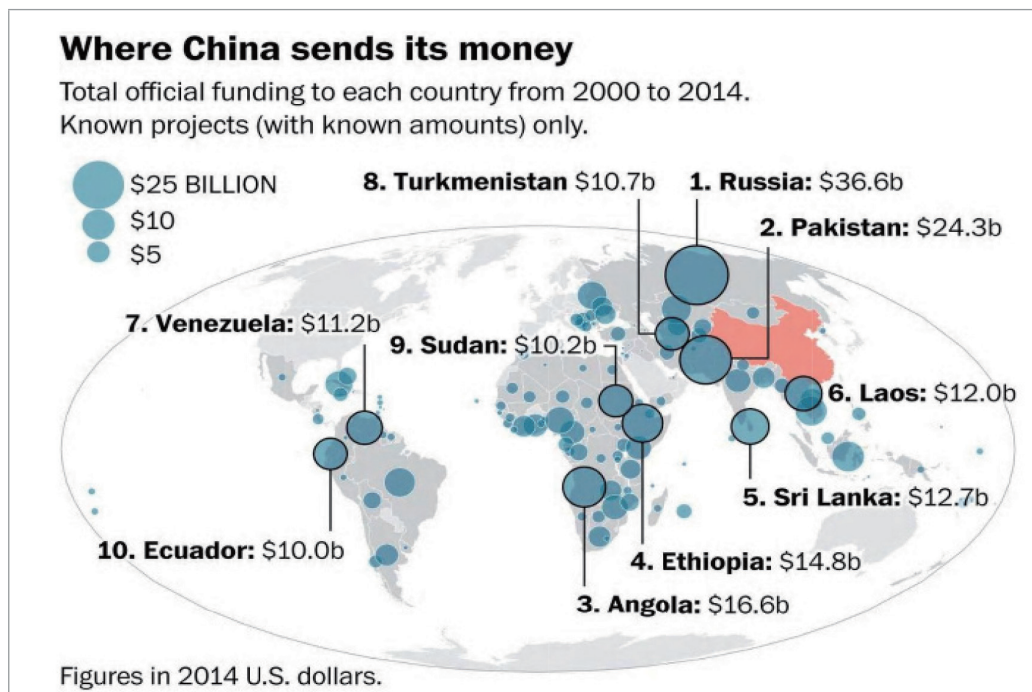
6) Dreher et al (2017)

7) Strange et al (2017)

8) Lowy Institute (<https://chineseaidmap.lowyinstitute.org/>),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피지,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 8개 도서국가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1,781,200,000 달러 지원 및 218 프로젝트 진행

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243억 달러의 파키스탄이 있다.

[그림 2] 중국의 국별 대외원조 현황 2000년-2014년



출처: AidData

중국의 원조는 그 역사가 상당한데 반해 대외원조 관련 전담부서는 최근에서야 설립되었다. 그간 전담기관 없이 3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부처 간 조정을 논의해왔으며, 2018년 3월 원조전담기관인 국가국제발전합작서(國家國際發展合作署, the St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CA)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원조 일원화를 목표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생기관으로 실제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무부처인 상무부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원조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OECD DAC 선진 공여국의 개발재원 중심의 원조와는 다소 대조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중국이 내정불

간섭(non-interference)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선호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OECD DAC 중심의 원조체제를 무시하는 것과 원조 효과성 저해 및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對아프리카 원조에 있어서 유럽과 중국의 원조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및 대립이 200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영향권에 속하는 유럽과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및 원조로 인해 경제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상원조보다는 시장이윤에 가까운 유상원조인 만큼, 수원국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며,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및 경제성장의 정체까지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⁹⁾. 실제로 최근 들어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부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등 여러 주변 국가에서 부정부패 및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과도한 일대일로 확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¹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원조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¹¹⁾. 이에, 선진공여국의 중국과의 협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11일, 중국과 독일은 對아프리카 및 對아시아 원조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하고자 중-독 지속가능개발센터(The Sino-Germa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립한 바 있다. 중국과 독일 간의 원조 협력은 이미 존재하였으나, 기존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합동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여국 간의 협업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OECD DAC 중심의 원조 체제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신흥 공여국들의 ODA 규모가 상당하며¹²⁾,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성 증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9) Dabla-Norris et al (2012); Ahlquist (2006); Kumar and Woo (2010) 등

10) 동아일보, 곳곳서 지뢰터지는 일대일로 흔들리는 시진핑 5년 야심작, 2018.08.16

11) Calderon and Servén (2010a, 2010b); Khandker et al (2013, 2014)

12) 최근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OECD DAC과는 별개로 막대한 자원 투입 및 인프라 구축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ODA는 연간 약 110억 달러에서 약 4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Dreher et al., 2017, AidData)

3) 중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사례

일대일로 경제회랑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¹³⁾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경전철, 항만, 수력발전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해외 개발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다른 주변 국가에 보여주기 위해 지난 3년간 620억 달러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로 파키스탄 카룻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2016년 1월 건설을 시작하여 2021년에는 수력발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16.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실크로드기금, 중국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20MW 설비용량(installed capacity)의 댐 완공 시 파키스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연평균 3,436G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허기간 만료 후 파키스탄 정부에 귀속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함은 물론, 향후 유럽 및 아프리카로의 진출로 확보에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에 가까운 유상원조는 사업을 확장할수록 수원국의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빚을 탕감해줄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나,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에 의하면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빌미로 운영권을 따내고 있거나 군사전략적 요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中非合作论坛)은 중국의 대표적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화기구이다. 2000년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8년 FOCAC에서는 더 긴밀한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건설에 관한 ‘베이징선언’과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19~2021)’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53개국 아프리카 정상들이 참석한 2018 FOCAC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 공동체임을 선언하며 600억 달러 지원¹⁵⁾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적 우군을 섭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잠재적 신흥 시장 확보에 주요 목적이 있

13)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14) 2015년 FOCAC에서 시진핑 주석은 10대 협력계획(十大合作计划)을 발표하며, 3년간 산업협력 강화 등을 위해 6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또한 중국 상무부(China's Ministry of Commerce, MOFCOM)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는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15) 150억 달러의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과 200억 달러의 신용대출, 100억 달러의 중-아프리카 특별 개발기금 및 아프리카산 특별 수입 자금 50억 달러를 포함 (경향신문, 시진핑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공동체”, 2018.09.03.)

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6년 발표되었던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¹⁶⁾. 현재 케냐 서부지역 및 에티오피아에서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다수의 중국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맥킨지 보고서(2017)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약 10,000개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중 90%가 민간 기업으로, 중국기업의 생산규모는 아프리카 총 생산규모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II. 일본의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2015년 국제협력 역사 60주년을 맞이한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함께 꾸준히 세계 5대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일본이 OECD DAC 초기 멤버임에도 DAC에서 정한 빈곤해소의 최우선 방향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의 배상 차원에서 시작된 일본의 ODA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실익추구를 우선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적 패권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현재의 ASEAN 국가에 ODA를 집중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해오고 있다¹⁷⁾. 일본 역시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ODA는 중점협력국을 별도로 선정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별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주요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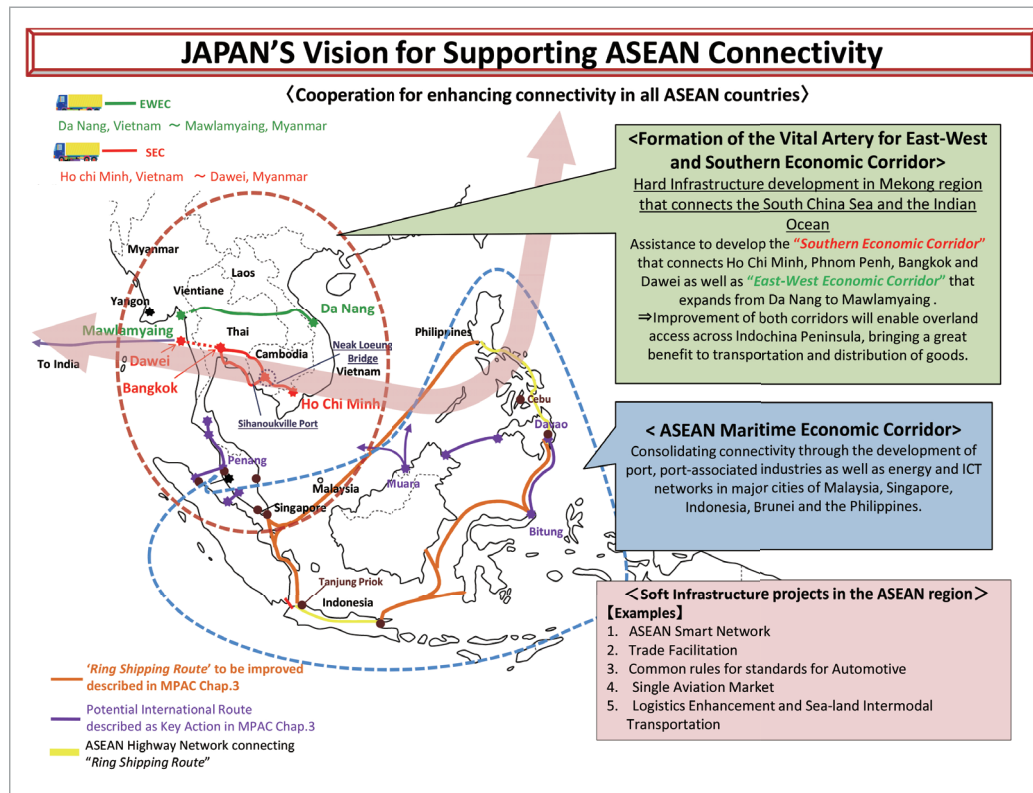
일본의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라 함은 아세안 커넥티비티 2025 종합계획(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2025; MPAC2025)의 지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아세안 지역의 협력은 그 역사가 다분히 길다. 일본과 아세안은 2011년부터 아세안커넥티비티조정위원

16)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주요한 원자재 공급처임 (권율·박수경, 2010)

17) 손혁상 외 (2008)

회(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ACCC) 및 일본커넥티비티대책위원회(Japanese Task Force on Connectivity) 간 정기 회의의 형식으로 커넥티비티에 관한 협력 플랫폼¹⁸⁾을 구축하였다. 이후 일본은 아세안 커넥티비티 강화를 위한 33개 주력 사업들을 시행하였고, 2013년 12월 일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ASEAN-Japan Commemorative Summit)에서 37개 주력 사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아세안 지역의 커넥티비티를 강화하는 주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림 3] 일본의 아세안 커넥티비티 지원 비전



자료: Sunaga, 2016

18) 2010년 10월 28일 아세안커넥티비티 2025 종합계획(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2025) 채택 후 동년 11월 일본이 아세안에 앞서 일본커넥티비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소집하였고, 2011년 4월 아세안커넥티비티조정위원회가 발족된 후 6월에 양 위원회 간 합동 회의(Joint meeting of ACCC and Japan's Taskforce on ASEAN Connectivity, ACCC-J)가 1차로 개최됨 (Sunaga, 2016)

또한, 아세안과 일본의 우호협력 4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아세안 우호협력 및 이행계획에 관한 비전 선언문(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Plan,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 及び その実施計画)을 채택하였고, 2017년 개정안(Revis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日・ASEAN 友好協力に関する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 実施計画改訂版)을 발표하며 효과적 실행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조할 것을 동의한 바 있다¹⁹⁾.

2017년 개정안에서는 1) MPAC2025를 이행하고; 2) G7 이세-시마 원칙(G7 Ise-Shima Principles)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며; 3) 민관협력의 효과적인 활용 등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확대된 파트너십(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하 EPQI)”이니셔티브 아래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 간의 커넥티비티 및 일본-아세안 커넥티비티를 강화하는 것을 종합적인 경제 파트너십 및 아세안 지역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라 명시하고 있다²⁰⁾.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16년 5월 개최된 G7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양질의 인프라투자를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을 공표하였다. 동 원칙은 다자개발은행(MDBs)을 포함한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개 원칙- 1) 자연재해, 테러,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리질리언스 및 안전성,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의 관점에서 효과적 거버넌스와 안정적인 운영(reliable operation), 경제 효율성 보장; 2)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역량 구축, 일자리 창출 보장; 3) 사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대처; 4)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개발 및 경제 전략과의 정합성(alignment) 보장; 5) PPP 등 효과적인 자원 동원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한편, 일본정부는 커넥티비티 협력 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커넥티비티 강화 및 양질의 인프라 정비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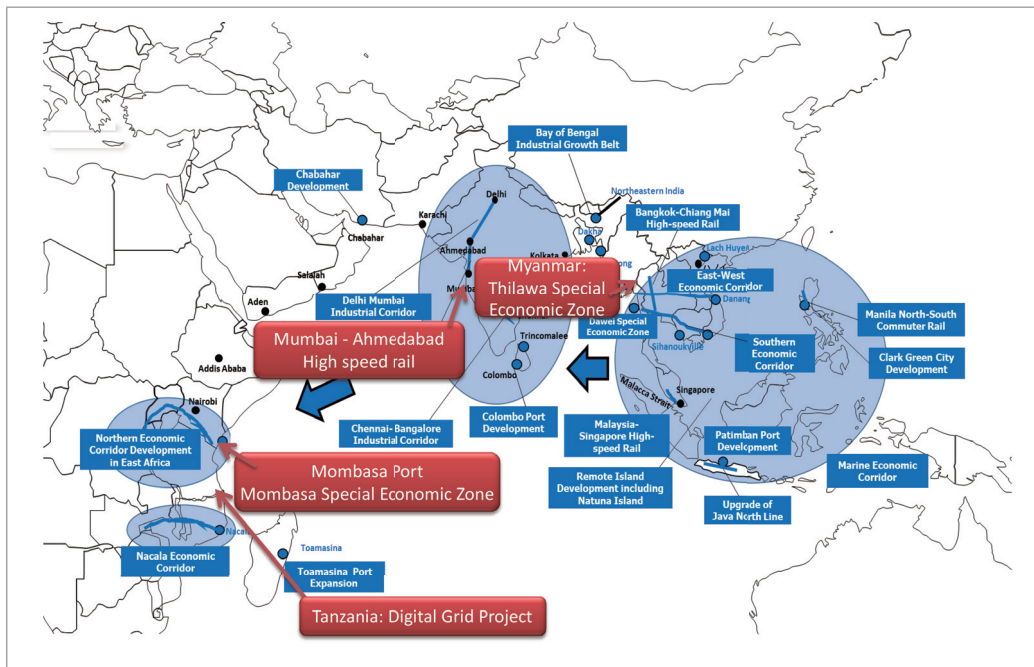
19) ASEAN (2017b); ASEAN (2018)

20) ASEAN (2017b)

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Indo-Pacific Strategy)²²⁾을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의 서쪽 끝이자 유럽과 아프리카로의 연결 선상에 있는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5개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과 인도의 관계 역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2000년 글로벌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2006년에는 글로벌 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며 對인도 ODA 및 상호투자관계 강화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자료: Sonour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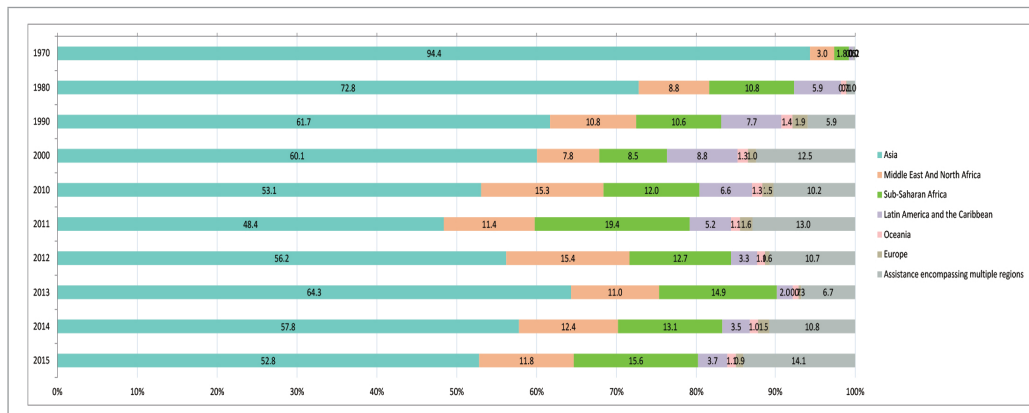
22) "Free and Open Indo-Pacific"은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4개 국가 간 상당 시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전략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안보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일 전략적 접근을 추구. 단순히 개발협력 측면이 아닌, 정치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국가의 관심과 견제가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임. 인도태평양 개념은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동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연안에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아시아 연안에 이르는 해양공간을 '자유와 법이 지배하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무역 투자, 인프라 정비 및 해양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사용함 (한국경제,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묶어 중국 견제하자는 개념, 2017.11.10.). 2017년 말 미국과 일본은 이에 공식화를 합의하고 공동외교전략으로 표명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 가능 (한국일보,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 공식화에 성공, 2017.11.06.). 이 밖에도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과 러시아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독일의 경우 일대일로에 맞설 수 있는 EU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중국의 중앙아시아로의 경제 군사 확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아일보, 중일대일로 맞서 미국-일본-인도-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2018.02.20.)

일본의 이러한 개발협력 관계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치외교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영향력을 아프리카로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셈이다. 'EPQI'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도 모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활성화 및 파트너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할 것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2)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017년 일본 개발협력백서를 살펴보면, 최근의 ODA기조에 커넥티비티 논의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일본의 ODA 순지출액은 2016년 대비 약 13.8% 증가하여 118억 6,405만 달러로 세계 4위 규모이며, 2012년-2016년 양자원조 기준으로 약 37.9%가 아시아 지역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상위 5개 수원국은 베트남, 인도, 이라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순이며, 기본 인프라(물·에너지·교통 분야)에 양자원조의 약 44.8%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 일본의 지역별 양자ODA 현황 (1990-2015)



자료: 일본개발협력백서, 2017

2015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에 의하면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던 ODA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점차적인 전략상의 목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빈곤 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ODA에서 평화 구축 및 민주주의 확산에도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협력 지역인 아시아의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지원 외에 정책 협력 및 인재 육성까지도 파트너십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인재 육성 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정책형성 협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 법 정비와 산업 정비 협력을 통해 개도국 인재와 제휴네트워드를 중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아시아 국가와 일본 간 고도(高度) 인재 교류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그 일환으로 같은 해 일본-아세안 정상회의 및 일본-인니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문을 통해 아시아 지역 12개 개도국 최상위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ODA를 활용한 인재양성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²³⁾.

이에 맞춰 아베 신조 총리는 지역 연결을 강화하고 아시아 내 양질의 인프라 재원 조달 및 투자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 이하 PQI)” 이니셔티브와 2016년 5월에 EPQI 이니셔티브를 공표하였다²⁴⁾. 기존의 PQI 이니셔티브에서 인프라 투자액이 1,100억 달러(아시아 대상, 2016-2020년간)이었던 반면 확대된 EPQI 이니셔티브에서는 동 투자액이 2,000억 달러(전 세계 대상, 2017-2021년간)로 증대되었다²⁵⁾.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는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추어 ASEAN 커넥티비티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²⁶⁾. JICA는 아세안 커넥티비티에 맞추어 3대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 對ASEAN ODA(유·무상 및 기술협력 포함)는 13.61조 엔(1,222.9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수혜국가로 약 4.72조 엔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필리핀이 2.44조 엔과 베트남 2.39조 엔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²⁷⁾. 2018년 8월에는 일본-ASEAN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아세안 기술협력 협정에 합의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수행 방안 등을 체결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는 가운데, 협정이 체결되면 JICA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술

23)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017)

24) ASEAN (2017a)

25) Sonoura (2017)

26) JICA는 2011년 4월 발족한 일본커넥티비티대책위원회 회원으로, 2012년 아세안 커넥티비티 협력 지원 방안 발표

27) The Jakarta Post, JICA calls for stronger unity in ASEAN to exert bigger power, 2017.06.24

협력 사업 등에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²⁸⁾.

[표 2] MPAC2025 지원을 위한 3대 연결성

Physical Connectivity	● Development of East-West and Southern Economic Corridors ● Development of Maritime ASEAN Economic Corridor
Institutional Connectivity	● Asia Cargo Highway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 AUN/SEED-NET ● Japan Centers

출처: JICA, 2012

한편, 일본-아세안 협력 외에 일본-인도 간의 협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과 인도의 관계 역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만큼, 다양한 협력 사업 및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일본-인도 정상회담 후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1,900억 엔의 차관을 50년 만기 연 0.1% 금리로 제공²⁹⁾하며, 적극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JICA는 5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약 1,878억 엔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³⁰⁾.

3) 일본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현황

일본 메콩강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Japan Mekong Connectivity Initiative, JMC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얀마 필라와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Thilawa Area, Myanmar)는 필라와 지역의 인프라 등을 개발하고 필라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in Thilawa)를 조성하여 일본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미얀마의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이다.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 중 2013년부터 시작된 1단계는 필라와 지역의 전력 및 항만시설 건설·개발을, 2014

2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8)

29) 조선일보, 일본은 우리의 11배나 인도 투자하는데..., 2018.02.26

30) JICA (2018)

년부터 시작된 2단계는 필라와 지역과 양곤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 및 접근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의 기획재정부에서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건설부에 각각 유예기간 10년 및 상환기간 40년에 연이자율 0.01% 조건으로 34,750백만 엔과 4,613백만 엔의 ODA차관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인적자원개발, 교육건설링, 산업, 운송, 하수시스템 등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ICA의 미얀마 개발 프로젝트는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하는 패키지 형태의 매우 광범위한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필라와 지역 일대의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및 KOICA 함의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로, 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여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짧은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나 범위가 다소 작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ODA만 놓고 본다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DAC 가입에 따른 정책 일관성 및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 1,174백만 달러 수준에 달한 총 ODA는 2016년 2,233백만 달러 수준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GNI대비 0.7%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0년 0.12%에서 2016년 0.16%로, 2020년에는 0.2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³¹⁾. 한국 역시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아시아 48.5%, 아프리카 26.8%, 중남미 지역에 8.9%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의 평균 기록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53.8%, 아프리카가 23.7%, 중남미 지역에 7.7%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 기조가 다소 약화되며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소규모 증가를 찾아볼 수 있다³²⁾.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 속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정치·외교적 중요성 증대와 아주 무관하

31) 한국국제협력단 (2017)

32) www.odakorea.go.kr

지는 앓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국가 순방(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중 발표한 정책인 신남방정책³³⁾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의 ODA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수준을 2020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 및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시장 확대 및 아프리카로의 교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정책 방향성과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일부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따라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3P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막대한 투자와는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사람(people: 다층적인 인적교류), 공동번영(prosperity: 아세안과의 보완적인 경제구조 확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평화(peace: 아세안은 전 세계 해상수송의 1/3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를 중점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즉,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³⁴⁾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2018년 8월 설치하였다.

정부는 ‘한-아세안 서밋 2017’에서 신남방정책을 알리고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정보통신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인프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 및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마트시티,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국토·토지·주택·도시 및 국토정보 등 인프라 이상 3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올 3월 베트남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인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남방정책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교류가 있어온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아세안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월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전 개소하며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시 對ASEAN 및 인도 ODA를 확대 및 강화하고자 한다. 3P

33) 한국은 G2외교를 중심으로 두었으나, G2 중심의 안보외교와는 달리 신남방 및 신북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인지함.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과해 온 만큼, 중장기적인 큰 틀을 갖고 차별화된 전략(3P)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진출하고자 함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7.11.09.).

34) 대한민국 청와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광화문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8.08.28.

전략과 연계하여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를 추진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국가들의 각각 상이한 발전 상황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률적 접근보다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면서도 민관협력 및 기업협력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ODA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으로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경제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다지는 가교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정부는 對ASEAN 및 인도 ODA를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KOICA 역시 지역 내 사무소 확대 및 증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외원조 및 ODA가 아세안 및 인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 ASEAN은 한국의 최대 ODA 협력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물량공세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적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물론이려니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對인도 투자는 2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11배 정도에 달하며, 진출 기업 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ODA 협력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일본은 매년 35억 달러에 달하는 ODA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⁵⁾.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수평적이고 다각적인 ODA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활용하여 수평적,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에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원국-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외에도 타 공여국과의 사업 연계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관협력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ODA사업을 향후 시장 확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및 은행의 아세안 및 인도 지역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여전히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및 중국과의 가장 큰 차별점을 ‘사람 중심’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람을 이해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 내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이다. 이는 단순 지원에서 경제교류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문화역사 교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P는 우리나라 국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ASEAN 및 인도의 사람, 평화, 그리고 번영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제공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들 국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 증대 및 문화교류 등의 파생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5) 조선일보, 일본은 우리의 11배나 인도 투자하는데..., 2018.02.26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 시스템을 고려한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각에서의 경제개발 방법이 우선시되기보다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방법을 활용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그들의 배경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일자리 및 고용을 고려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발전 경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그들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우리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KOICA 또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민간협력사업 및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ASEAN ODA의 경우 기존의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를 고려하면서도 타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ASEAN은 MPAC2025 등의 거시적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만큼, ASEAN지역과의 공동체 구축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략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도 고려할만하다. 한편, KOICA의 인도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의 아프리카 등을 포함하는 주변국 사업과의 연계성을 함께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더 넓은 네트워크 구축까지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진출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강화 및 인적교류 등의 수평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전략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ASEAN 및 인도 모두 거대한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나 사업 기회만큼 투기나 노동착취 등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요구되는 바이다. 현지의 사회적 가치 및 인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현지인 및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KOICA의 역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류는 아세안 및 인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큰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적극 활용하여 소프트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SEAN 및 인도가 전략적 요충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ODA를 통해 경제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파트너십이라고 내세울 만큼의 전략수립은 아직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신남방정책 역시 기존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사 차원의 방문보다는 적극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바, 관련하여 치밀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며, 거시적인 전략 제

시 외에 세부적인 아이템 위주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관계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율·박수경,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석수, 2016.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3(1): 83-108
- 박석원,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 공식화에 성공.” 한국일보, 2017.11.06.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61931596491> (접속일: 2018.08.13.)
- 박은경, “시진핑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공동체.” 경향신문, 2018.09.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32146005&code=970100 (접속일: 2018.09.04.)
- 손혁상·최정호, 2008.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18(2): 137-171
- 오화석, “일본은 우리의 11배나 인도 투자하는데...” 조선일보, 2018.02.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5/2018022501611.html (접속일: 2018.09.04.)
- 윤완준, “中일대일로 맞서 미국-일본-인도-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동아일보, 2018.02.20. <http://news.donga.com/3/all/20180220/88763937/1> (접속일: 2018.08.14.)
- _____, “곳곳서 지뢰 터지는 ‘일대일로’... 흔들리는 시진핑 5년 야심작.” 동아일보, 2018.08.16. <http://news.donga.com/3/all/20180816/91530746/1> (접속일: 2018.09.04.)
- 이승신·이현태·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오윤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묶어 중국 견제하자는 개념.” 한국경제, 2017.11.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096021> (접속일: 2018.09.04.)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017. “일본 개발협력백서 발표.” http://down.mofa.go.kr/jp-ko/brd/m_1065/down.do?brd_id=3166&seq=1292085&data_tp=A&file_seq=1 (접속일: 2018.08.13.)

_____ 2018. “일본 2017년판 개발협력백서 발표(18.2.23).” http://down.mofa.go.kr/jp-ko/brd/m_1065/down.do?brd_id=3166&seq=1344329&data_tp=A&file_seq=1 (접속일: 2018.08.16.)

한국국제협력단. 2017. 2016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성남: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5250> (접속일: 2018.08.16.)

Ahlquist, J.S. 2006. “Economic Policy, Institutions, and Capital Flows: Portfolio and Direct Investment 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2006): 681–704

ASEAN. 2016.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http://asean.org/storage/2016/09/Master-Plan-on-ASEAN-Connectivity-20251.pdf> (접속일: 2018.08.16.)

_____ 2017a. “Overview of ASEAN–Japan Dialogue Relations.” <http://asean.org/storage/2012/05/Overview-ASEAN-Japan-Relations-As-of-8-March-2017.pdf> (접속일: 2018.08.09.)

_____ 2017b. “Revis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Shared Vision, Shared Identity, Shared Future.” <http://asean.org/storage/2017/08/Revised-IP-of-ASEAN-Japan-Vision-Statement-Final.pdf> (접속일: 2018.08.09.)

_____ 2018. “ASEAN and Japan reaffirm commitment to strengthen partnership.” <http://asean.org/asean-japan-reaffirm-commitment-strengthen-partnership/> (접속일: 2018.08.09.)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2018. “Karot Hydropower station to be completed by 2021” <https://www.app.com.pk/karot-hydropower-station-to-be-completed-by-2021/> (접속일: 2018.08.30.)

Calderón, C. and Servén, L. 2010a.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19(1): 13–87

_____. 2010b. “Infrastructure in Latin America.” In José A. Ocampo and Jaime Ros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tin American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59–690

Dabla-Norris, E., Brumby, J., Kyobe, A., Mills, Z. and Papageorgiou, C. 2012. “Investing in public investment: an index of public investment efficienc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7(3): 235–266

Dreher, A., Fuchs, A., Parks B., Strange, A.M., and Tierney, M.J. 2016. “Aid, China, and Growth: Evidence from a New Global Development Finance Dataset.” Working Paper 46, AIDDATA

Gatti, S. 2012. *Project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US: Academic Press

JICA. 2014.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Thilawa Area Phase II” Ex-Ante Evaluation.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evaluation/oda_loan/economic_cooperation/c8h0vm000001rdjt-att/myanmar_140905_03.pdf (접속일: 2018.09.03.)

_____. 2015a.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Thilawa Area Phase I (II)” Ex-Ante Evaluation.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evaluation/oda_loan/economic_cooperation/c8h0vm000001rdjt-att/myanmar_150630_02.pdf (접속일: 2018.09.03.)

_____. 2015b. “Signing of Japanese ODA Loan Agreements with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5/150630_02.html (접속일: 2018.09.03.)

_____. 2018. “Signing of Japanese ODA Loan Agreements with India: Contributing to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through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7/180330_01.html (접속일: 2018.08.25.)

Karasawa, Masayuki. 2018. “JICA’s Commitment in Myanmar’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gram.” https://www.myanmarwaterportal.com/storage/eb/articles/522/plenaryaddress2-mr.masayukikarasawa_14134600.pdf (접속일: 2018.09.03.)

Kazuo Sunaga. 2016. “Japan’s assistance to ASEAN Connectivity in line with MPAC2025.” <http://www.asean.emb-japan.go.jp/documents/20161102.pdf> (접속일: 2018.08.09.)

Kentaro Sonoura. 2017. “Japan’s initiativ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https://www.mofa.go.jp/files/000291344.pdf> (접속일: 2018.08.13.)

Khandker, S.R., Barnes, D.F. and Samad, H.A. 2013. “Welfare Impacts of Rural Electrification: A Panel Data Analysis from Vietnam.”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61(3): 659–692

Khandker, S.R., Samad, H.A., Ali, R. and Barnes, D.F. 2014. Who Benefits Most from Rural Electrification? Evidence in Ind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095. World Bank

Kumar, M.S., and Woo, J. 2010. Public Deb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WP/10/174

McKindsey&Company. 2017. “Dance of the lions and dragons.” <https://www.mckinsey.com/africa-china> (접속일: 2018.8.1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G7 Ise-Shima Principl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https://www.mofa.go.jp/files/000160272.pdf> (접속일: 2018.08.13.)

_____. 2017.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www.mofa.go.jp/files/000286376.pdf> (접속일: 2018.08.09.)

_____. 2018.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Japan–

ASEAN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1e_000078.html (접속일: 2018.08.09)

Strange, A.M., Dreher, A., Fuchs, A., Parks, B., and Tierney, M.J. 2017. “Tracking Underreported Financial Flows: China’s Development Finance and the Aid–Conflict Nexus Revisit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5): 935–963

The Jakarta Post. “JICA calls for stronger unity in ASEAN to exert bigger power.”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7/06/24/jica-calls-for-stronger-unity-in-asean-to-exert-bigger-power.html> (접속일: 2018.07.15)

The Economist. 2016. “Our bulldozers, our rules.” 2016.07.02. <https://www.economist.com/china/2016/07/02/our-bulldozers-our-rules> (접속일: 2018.07.15.)

Zhang, D., Smith, G. 2017. “China’s foreign aid system: structure, agencies, and identities”, *Third World Quarterly*, 38(10): 2330–2346

中国日报网, 中国 ‘一带一路’构想将重塑全球经济格局, 2014. 8. 19,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4-08/19/content_18446384.htm (접속일: 2018.07.15.)

MEMO

MEMO

연구자료

ODA연구 2018-11-166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